

# 김옥임 교수가 쓰는 지족의 경제학 <20>

석존(釋尊)의 가르침은 인간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그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순수한 생명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핵심이 있다. 따라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 감각이 있는 나무, 꽃이나 뱀, 새 등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폭력적 태도를 요구한다.

모든 것들의 내부에는 그 존재를 존재로서 나타내는 생명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바로 보고 깨달아, 이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할 때 모든 존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악업(業)의 하나인 '살생'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생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동·식물의 생명을 희생시켜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연물에 의해 살려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무차별 살생을 하거나 취미로 동식물의 생명을 빼앗고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불교도들은 단순히 즐기 위한 사냥이나 낚시에도 반대한다. 모든 불교도는 2, 3년마다 나무 한 그루씩을 심고 그 나무가 완전히 뿌리를 내릴 때까지 보살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 사상이라 생각한다.

자애가 존재의 인연이 되면 인간과 자연과의 경계가 없어진다. 인간과 동·식물이라는 관념을 초월한 평등한 생명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불교도가 '소비를 미덕'으로 여기는 것은 살생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아깝다'는 생각에 소비를 절제하면 한다면 우리가 사는 환경이 폐품창고가 될 것이

다. 가능하면 폐품을 만들지 말고 또한 재활용하는 생활의 지혜를 펴는 것도 살생계(殺生戒)를 범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자연은 신의 피조물이므로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거나 두려워하거나, 자연과 공존하는 것은 이슬람, 기독교 등 일신교와는 상관 없는 사상이다. 신은 인간과 자연을 창조했지만, 거기에는 처음부터 계층이 있었다. 신 밑에 인간이 있고, 자연의 관리는 인간에게 맡겨진 것이다. 석존의 가르침처럼 자연과 공생하기보다는, 자연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신의 생각이란 것이 기독교의 발상이다.

기독교의 발상과 보급은 유럽인의 자연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구문명에서는 자연 즉, 산이나 골짜기 또는 뱀과 새 같은 야생 동식물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항되는 '악'이므로 인간이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유럽의 정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유럽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원은 베르사이유 궁전처럼 인간의 손으로 품종 개량된 장미꽃 같은 것을 인공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실제로 서양인의 미(美)의식은 동양인들처럼 산이나 들과 같은 자연을 보고 그 풍경을 정원에 재현하는 미의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처럼 자연이란 인간이 관리하고, 정복하고, 길들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기독교이다. 이런 자연관이 있었으므로 근대 서구사회는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패자(覇者)가 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인간에게 자연 속에 있는 진리를 해명하고

# 21세기 지향목표는 자연 사랑 · 보존 · 조화

##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위한 녹색성장시대 정책수단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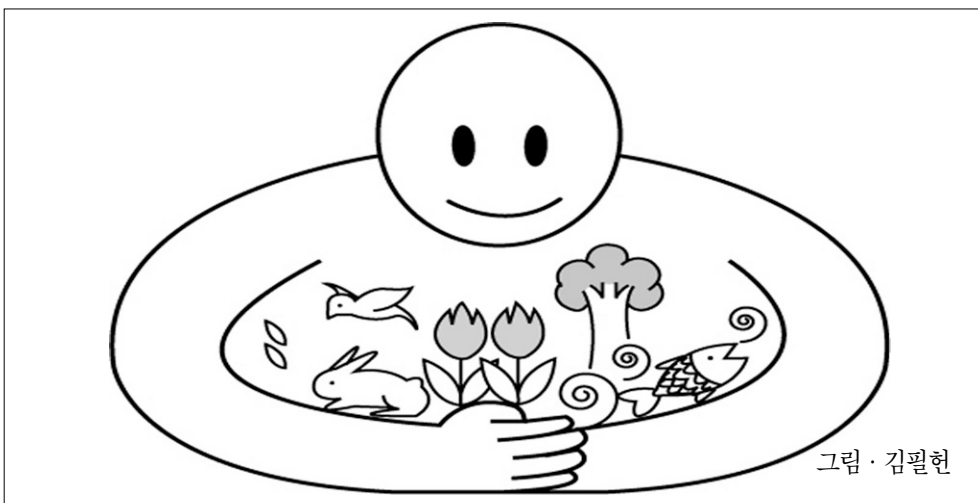


그림 · 김필현

자연을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으면 자연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서구인이 7개의 바다를 건너서 각지에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고, '자연을 개발하면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자연의 경의 생각이 있었다면 미국인의 서부 개척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확실히 이런 자연관이 개척정신을 발휘할 수 있었으므로 근대과학이나 자본주의가 발달한 것은 틀림없다.

만일 자연이 신성하다는 생각이 남아있었다면 토지의 매매도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자본주의의 성립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자연관에 기초를 둔 서양문명, 그

리고 그 극점에서 미국식 탐욕자본주의 사회는 지금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초래한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과학적 발달, 생산성의 상승, 물질적 풍요로움의 결과 인간생활의 편리함 같은 것인데, 분명히 그것은 지구자원의 활용한도를 넘어서고 있다. 환경파괴가 멈출 줄 모르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물질적 풍요와는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거칠어지고 사회도 파멸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21세기에 들어와 자연과 인간을 대립적으로 인식하는 일신교적인 발상, 근대화주의의 사상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에서 탈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원래 '사막의 종교'인 이슬람교나 유대교, 가톨릭,

기독교 이전의 인간은 숲이나 뱀 등 자연을 신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동물 속에서도 영성(靈性)이나 신성(神性)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런 자연관 쪽이 실은 '보편적'인 것이며, 인간이 자연을 마음껏 정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특수했던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다시 한 번 고대인이 가지고 있던 자연관, 자연에 대한 숭배심이나 불교의 공존의 가르침을 다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애니미즘(자연숭배)'은 지금까지 원시적인 종교, 미개인의 신앙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신교에서 보는 평가가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의 조화와 공존공영을 지향하는 불교의 가치관이야말로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 있을 때 한국인의 전통적인 의식, 종교 및 자연관이 현대세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것은 아마 세계의 여러 문명 중에서 우리 조상들 만큼 자연에 대한 소박한 신앙심이나 애정을 키워온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성장지상주의 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환경을 파괴하는 경제성장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이제는 환경경영을 표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경제성장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 수단도 등장하고 있다. 바이흐로 녹색성장 시대임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 인문대 경제학과 교수

### 20 고객과 코치

코칭 교과서를 보면 때로 하품이 나온다는 것이 코치들끼리 하는 객적은 불평이다. 코칭 전문가 양성을 위해 써놓았다는 전문서적을 보면 한마디로 성인 군자가 되어야 좋은 코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다름 없는데, 그러면서도 고객이 느끼기에는 격의 없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때로는 더듬대거나 소말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너무 망가져서 성실성을 의심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니 참으로 난감하다. 그 뿐 아니라 코칭 이아말로 리더십의 발전이므로 격물치지(格物致知) 성의정심(誠意正心), 자기리더십을 굳건히 갖추고, 인간관계 리더십의 승-승(Win-Win) 원칙에 충실함으로써 중생의 서로 다름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시너지에 대한 보편한 믿음을 갖고, 커뮤니케이션의 제 법칙을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고(故)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모 일간지 주필이던 같은 이름 다른 사람인 기자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대해 직설적으로 '아이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제목의 의미심장한 칼럼을 썼던 것을 기억한다. 두려운 것은 우리의 삶이 삶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삶이 어떤 자식을 낳게 한 삶이었는데가 하는 것으로도 평가된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집짓 아들에게 물었다. "아버지의 삶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지?"

## 허달의 불교와 코칭

빙그레 웃기만 할 뿐 대답이 없다. 이 녀석이 감을 잡은 것이다. 아버지의 이런 바 코칭 질문에 선분분 답을 했다가는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는 모른다. 경험칙이 작동한 것인지도 모른다. 코치를 사이에서도 배우자 코칭과 가족 코칭은 가장 어려운 코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족 코칭에는 일반적으로 코치의 어젠다(Agenda)가 있는 것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 아무리 아닌 척 해도 '가정을 위해서 아내의 이런 습관은 바꾸도록 코칭해야지'라든가, '이 아들 녀석은 지금 가치판단이 잘못되어 있으니, 이것을 바로잡아 놓아야 해'라든가 하는 의도가 코치의 마음 속에 은연중 내포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코칭의 결과가 여의치 않은 것에 대해 코치가 고객 탓(?)을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가족 코칭의 특성 중 하나이다.

가족이 코칭의 대상으로 별로 답답지 않은 고객이라면 어떤 고객이 좋은 고객일까? 우선 마음의 연결이 잘 되는 고객이 코치에게는 반갑다. 코치를 전지전능한 도우미로 보지 않고, 한계가 분명한 전문가(Professional)로 보는 고객, 고객 스스로가 코칭을 통해 무언가 얻기를 희망하고 그런 희망을 글질 없이 코치가 제공한 비밀보장의 테두리 안에서 믿고 풀어놓는 고객, 선택이 분명하고 자신이 선택한 바는 책임을 갖고 실행하는 고객, 이렇게 쓰다 보니 최고의 고객은 코칭이 필요 없는 고객이라는 역설이 필한지도 모르겠다. 서로 마음으로부터 연결되고 통하여, 상호 지지(支拂)를 느끼는 동반(同伴)과 같은 존재가 아마도 가장 이상적 고객일 것이다. 그런 경우라면 삶의 방식이 아닌 직업으로서의 코칭은 의미가 많이 퇴색하게 될지도 모른다.

### 이상적인 코치는 도반과 같은 존재

CEO 코칭을 시작하는 경우, 나는 미리 마련한 한 페이지 정도의 코칭 역할 리스트를 고객 앞에 내밀고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한다. 고객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코치의 역할을 선택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어떤 CEO 고객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 어떤 고객은 침묵하는 경청자, 에너지를 북돋아 주는 지지자(支持者), 또 어떤 고객은 자신의 리더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조언자, 리더십 기술의 연마를 위한 스포팅 파트너의 역할을 맡기도 한다. 외국의 예컨대 글로벌 대기업의 CEO들 중에는 코칭을 업무여행에 동반해 여행 기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휴가 중에도 동반해 창의적인 대화상대(Chatting Partner)의 역할을 맡기도 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픽션의 원치 않는 주인공이 되었던 핵물리학자 고(故) 이휘소 박사의 이야기이다. 당시 핵물리학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되기를 원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휘소 박사의 애국심에 호소해 간곡히 그의 귀국을 권유했다 한다. 연구 장비든, 연구소 환경이든 무엇이든 미국의 연구소와 똑같이 해줄 것을 약속했으나, 심사숙고 끝에 나온 이휘소 박사의 대답은 "No!"였다고 한다. 채팅 파트너가 없으면 창의적 연구를 이어 가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당시 대통령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코칭의 방법에 대하여 알았을 터인데, 이 말의 진의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자못 궁금하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 대도무문 즉시 도통하는 천복대운 말문을 열어 시공을 초월경신도통으로 견성 성불하여 만인을 제도 일류 스승되는 루진통 대용맹 정진대법회

진광진법 진태양에 비할인 천지공사 동방의 빛이 전세계를 지배하는 뜻을 태일대시는 이 소식을 알아듣는 진인에게 전하노라

●경신도통이란 인간의 수행으로는 죄와 업을 벗지 못하고 역대 누구도 상에 빠져 음과 양 무상과 무상의 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삼시구중의 원부리를 뽑아 눈으로 보는 세상을 초월 영원한 세상 생명의 빛으로 탐진치 겸집을 벗는 수행법이고 음과 양이 바뀌고 산과 바다와 물질과 물질이 바뀌는 지구촌 등방의 빛이 전세계를 비추니 대한민국 국운이 전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광명의 시대가 시작되는 기축년 양력 11월 10일, 11일 자시와 오시에 天福 大運이 태양진광진법을 소용을 우는 곳에 도통군자들에게 하늘의 뜻을 받는 루진통 득도법인 용맹정진.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에서 생명의 빛이 해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명을 열고 정신과 신심과 육신의 문을 열어 영원한 세상 팔자와 운명이 바뀌어 천하를 다스리는 천지공사 죽음의 뿌리를 끊고 시공을 넘어 경신도통으로 병없이 사는 최상승수행법이며 우리나라 국운이 지구촌을 지배하고 각나라에 해와 달과 별을 규기로 사용하는 나라는 운이 약해지고 전세계의 기운이 우리나라 운집하여 세계인류 평화촌 시대가 시작되는 대비밀법에 도전하시어 도통군자되시고 천지공사 주인되시고 스승되는 수행법이며 중풍, 치매, 노화병자를 허여 젊음을 유지하는 수행법.

본 달마종단에서는 건강을 다스리고 수명을 관리하는 새로운 후천달마도법으로 뜻이 있으신 분과 분당은 생활불교,가사불교,보살불교,대중불교 머리끝과 손끝에 구애 받지않고 남녀노소 연령제한없이 불법행복에 뜻이 있고 수행하고자 하는 분은 입증을 언제라도 환영.

◆특별 금년 유달은해 기축년은 조상의 해이고 결혼, 생남, 사업, 일류대학, 진급, 고시, 취직 도통군자들에게 운이 막히고 방해하는 것은 자기 조상해달 못한 영가들의 방해이므로 본인의 삼생의 죄업을 벗고 약한운과 일체교역을 소멸하는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대용맹정진을 경신일에 수행하면, 본인에게 돌아오는 공덕

- 1.대운이 열리고 막힌운과 막힌 자금회전되
- 2.병마가 침입하지 못하며 건강하다.
- 3.호법선신이 도와 도박, 음주, 담배 금연이 된다.

- 4.사주팔자가 변하여 부귀장수 한다.
- 5.직장, 사회, 가정에 화합이 잘 된다.
- 6.삼재팔란 관제, 인간 구설이 소멸된다.
- 7.불의의 사고를 방지한다.
- 8.잠시에 병의된 조상, 남으로 부터 해원상생 되어재기가 되고 자금이 돌아 성공한다.

◆천하대도 경신도통으로 기천문을 열어 상통천문하달지리로 자신의 일체의 병을 다스리는, 귀신마장의 포망을 넘어 유물선이 하나로 되는 천지공사 루진통 도통군자 되는 법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 봉행, 금년 유행되는 신종플루 전염병을 막는 것은 배짱을 먹는 것이 비방이다.

대한불교달마종계중 부산법일동 약사도량 진불선원 부산 동구 범일동 830-295 삼환빌딩 3층 법당 보현스님 합장 051)635-3110 / 후대문 010-8533-1601,010-3239-3110

※ 특히, 천지공사달마 천공회천법으로 해안을 열어 거부정자로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천이명당 진인출현 경신수행 기도수행처, 기동명당 봉황산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 259번지 ☎ 041)867-7763 / 010-7728-6707 세계불교달마중 천지공사경신도량 진불선원 태양집 수행처 법당법불자, 맞이교양사, 수행자, 인연자 동참자. 달마중 입중 환영.

●입제 : 양력 2009년 11월 10일(윤, 9월 24일 화요일)(해시)  
●해제 : 양력 2009년 11월 11일(윤, 9월 25일 수요일)(해시)  
02-821-6622, 821-7767, 010-3239-3110

●농협 029-01-167866 락터원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살거리역 3번출구 → 버스 461번,153번으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관음정사 별관

사단법인 대한불교 달마종계중 교육원 천지공사미륵달마 진보 도통 회 입중 세계불교 달마중 중 본산 태일합장

## 중국 육조사(육조선원) 지구본원 선원장 모집

중국 광동 육조사 한국 분찰 용화사(육조선원)에서는 중국선종의 초조 달마대사로부터 육조 혜능대사에 이르는 선불교 사상과 정통계선종의 법맥을 함께 "21세기"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불자님과 청정수행도량인 육조선원(분원, 명상센터)를 운영하실 스님 및 재가불자를 모집 합니다.

- ◆ 자 격 : ★ 선 원 장 : 학력 및 경력,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한국 비구, 비구니, 재가불자로 자비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분으로 수행도량 여건을 갖춘신 분
- ◆ 연 락 처 : 육조사 한국 분찰 용화사 (강원도 원주시 소재) TEL : 033)761-7008, 761-2556 FAX : 033)761-3200 HP 011-285-6800
- ◆ 서울 문 화 원 : TEL : 02)766-6800, 720-6363 FAX : 02)720-6340 HP 010-4176-5623
- ◆ 경기 문 화 원 : TEL : 031)574-1108
- ◆ 부산 육조사원 : TEL : 051)403-1375

※ 본 중국육조사 한국분찰 용화사 방장 석 연화 스님은 한국불교의 임당한 현실과 세계불교화에 뜻을 두고 중국 승산 소림사 제자로 득도 수계 후 수행 중 지난 2008년10월11일 중국 광동성 육조사 (대원 방장)와 한.중 불교 선 문교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의발을 전수 받았으며, 양국 사찰에 기념비를 세우고 지난 2008년 12월28일 중국에서 천 년 만에 재현된 육조제를 한국에 유치 봉행위원장으로서, 2009년 5월2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제2회 육조제를 봉행하였고 5월24일 불교 TV방송 "열린마당" 프로그에 육조사 대원방장님과함께 특별출연 한 • 중선불교문화와 양국불교가 나아 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6월 5일에는 다시 육조사를 방문 육조사 한국 분찰용화사 방장으로 임명 받았고 한국 육조 법맥의 수법 및 전권대표로 중국 육조사 전법중심인 육조선학원원장에 추가 임명 되었으며 지난 9월14일에는 육조사 대원방장님의 초청으로 중국 호남성 홍강구 선 불교문화 축제에 참가 대홍사 육관불법전 법회에 증법법사로동참하여 9월 17일에는 육조사 혜능대사 성상이 모셔진 육조전에서 거행된 전법 수계식에서 육조사 한국 제자로 수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